

악재에 내성... 변동 장세속 2,000 간다

12월 증시 어떻게 될까

12월 주식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국내 증시는 최근 조정을 유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대외 악재들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국내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낙폭은 제한되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아 단기적인 분위기가 위기에 따른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750~2,100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관측됐으며 유망 업종으로는 기존 주도주인 조선, 해운, 철강과 함께 통신 서비스, IT, 인터넷, 자동차, 은행 등이 제시됐다.

美 금리 인하·국내 대선 계기 불확실성 완화

낙폭 과대주·조선·철강주 비중 확대 해볼 만

대선증권은 "미국 신용경색과 경기둔화, 중국의 긴축정책,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지수는 2,000선 가까이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증권은 12월 코스피지수의 예상 변동 범위로 1,750~2,000을 제시했다. 동양증권증권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중국의 계속되는 긴축 우려와 고평가 논란, 엔케리트 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회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의 변동 범위로 1,800~2,000을 예상했다.

신영증권은 "미국 금융기관의 손실 처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클라이맥스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금리인하와 슈퍼펀드 조성 등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미국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연말·연초 불안 국면을 거친 뒤 내년 1·4분기 중반 이후 강세장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지수의 12월 변동 범위는 1,750~2,

100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현대증권은 1,840~2,040, 굿모닝 신한증권은 1,820~1,960, 한국투자증권은 1,800~1,950을 코스피지수의 예상 변동범위로 제시했다.

한편 주요 증권사들은 12월 유망 업종으로 최근 낙폭이 컸던 조선, 해운, 철강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IT, 인터넷, 자동차, 은행 등을 추천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년 실적이 긍정적인 산업재 대표주들은 낙폭 확대를 저지할 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강, 플랜트, 전선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 통신산업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통신, 방송, 인터넷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도 "낙폭이 컸던 중국 관련주와 내수주, 조선과 유통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건설경기 부진 지속 기계·조선은 고성장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주요산업 전망

내년에는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기계·조선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해운·물류·정보통신·자동차 산업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대규모 개발계획 시행으로 공공부의 변화와 맞물려 통신, 방송, 인터넷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도 "낙폭이 컸던 중국 관련주와 내수주, 조선과 유통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 심화되고 수익성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주택공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내역 공시제 시행 등으로 주택품질 저하, 주택공급 축소 등이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계·조선은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설비투자 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고유가 상태로 중동지역의 오일값이 지속되고 신용 개도국의 성장세가 탄탄하다는 점도 국내 기계산업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특히, 환경정지문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주택보급률 확대, 금리상승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세계 기계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미국·독일·일본 등 3대 기계산업 강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가 항공사 '에어 코리아' 내년 5월 국제선 취항 무산

정부가 신생 저가항공사의 경우 국내선을 먼저 운항해야 국제선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확고히 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의 내년 5월 국제선 취항이 무산됐다. 반면 제주항공은 국제선 기준을 충족해 내년 6월부터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내선에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을 발표하면서, 신생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의 경우도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선을 일정 기간 취항해야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6일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를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전용으로 내년 5월에 취항하겠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건교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대한항공측은 "국제선 취항 기준은 안전성 여부를 바탕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국내선을 2년 띄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항공사에 국제선 면허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일단 내년 5월에 국내선으로 취항한 뒤 2010년 하반기에 국제선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제주항공은 기존 국내선 경험을 인정받아 운항 2년째가 되는 내년 6월 5일 이후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지방대 출신 韓銀 입사 '별따기'

올 신입 행원 35명 중 한명도 없어

한국은행의 신입행원 공채에 지방대 출신이 합격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신입행원 공채 합격자 35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아예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지방대 출신에 문호를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지역경제전문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별로 지방대 출신을 뽑았으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지역본부 조직을 축소하면서 2006년을 끝으로 지역경제전문직으로 지방대 출신 채용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부산대 출신 1명이 신입행원 공채를 통해 한은에 입성했으나 올해는 지방대 출신의 명맥이 끊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신입행원 공채 규모가 100명 이상에 달하던 시절에는 지방대 출신이 상당수 합격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 신입 공채선발인원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지방대 출신의 합격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로 나가는 토종 캐릭터

FTA의 참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07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우리나라의 토종 캐릭터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금리 4년7개월만에 최고

연 6.55%... 中企 대출금리도 6년만에 가장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년7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연 6.55%를 나타냈다. 이는 2003년 3월(연 6.60%)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0.08%포인트 급등한 연 6.9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연 6.71%로, 2003년 4월(연 6.84%)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6.93%를 기록해 2001년 10월(연 6.96%)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일부 은행들이 이자마진 등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금리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택 및 중기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5.27%를 기록했다.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지난 9월 6년 여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나 지난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약정기간이 짧은 공공기관 정기예금 취급이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 /연합뉴스

정기예금 금리 7%대 육박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다. 증권시장으로 자금 이탈,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대 저축은행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번주부터 1년 정기예금금리를 연 6.8%로 인상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5개월 이상 정기예금 상품에는 7.0% 금리를 적용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5.27%를 기록했다.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지난 9월 6년 여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나 지난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약정기간이 짧은 공공기관 정기예금 취급이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 /연합뉴스

다. 소액신용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HK저축은행은 최근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연 6.5%에서 7.0%로 0.5%포인트나 인상했다.

HK저축은행은 제휴사인 현대카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

식약청 위생관리 당부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가정 위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물의약품안전청은 기온이 낮은 12~2월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28일 요청했다.

식약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충분히 익힌 음식물 제공 ▲가정이나 단체시설에 설사, 구토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염소계 소독제인 락소산 신속하게 세척·소독 ▲감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 까운 병·의원에서 치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소 종사자는 완치 후에도 3일 동안 조리업무 중지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면서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 실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 또는 분변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겨울철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단체급식소 등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닿은 식재료를 날 것으로 섭취해 감염되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충분히 익힌 음식물 제공 ▲가정이나 단체시설에 설사, 구토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염소계 소독제인 락소산 신속하게 세척·소독 ▲감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 까운 병·의원에서 치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소 종사자는 완치 후에도 3일 동안 조리업무 중지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외제차 부품비 현지 보다 2~3배 비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부품비가 해외의 현지가격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관련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외제차 부품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8일 벤츠, BMW, 아우디 등 국내 점유율이 높은 외제차의 부품가격(이하 부가가치세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벤츠 S600'의 경우 달러가 청구하는 부품비가 독일 현지가격(1유로=1천309원 적용)에 비해 144.6%(라디에이터)~ 301.6%(콘덴서) 높았다. /연합뉴스

'아우디 A6 3.2'는 143.2%(뒷문짝)~ 187.2%(쿼터패널), 'BMW 750Li'는 136.3%(센터)~ 167.2%(뒷문짝) 국내 부품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고급 차량인 '에쿠스 VS450'를 기준으로 '차량가격 대비 부품가격 지수'를 비교하면 외제차 부품이 최고 1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별로 '혼다 CR-V'는 1.9~ 11.5배, 'BMW 530i'는 1.7~ 7.2배, '벤츠 S 350'은 1.2~ 4.3배, '아우디 A6 2.4'는 1.3~ 7.1배 각각 높았다.

예를 들어 벤츠의 신차가격이 1억6천 290만원으로 에쿠스(7천696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라디에이터 가격이 벤츠가 98만700원으로 에쿠스(10만8천 원)보다 9배나 높기 때문에 차량가격을 감안한 부품가격은 4.3배 높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 대대적 임원 승진 인사

대우건설 사장 서중욱씨 금호리조트 사장 김봉구씨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43명, 상무보 62명 등 모두 127명의 임원을 승진시키는 등 12월 1일자 정기 임원인사를 28일 단행했다. (명단 20면)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장인 서중욱 부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으로, 김봉구 금호리조트 부사장이 금호리조트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대우건설은 서중욱 부사장이 '이사'와 '상무보'로 승진된 임원 승진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부터 '상무보'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의



〈서중욱 사장〉 〈김봉구 사장〉

임원 직급체계는 상무보·상무·전무·부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으로, 김봉구 금호리조트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그들 사장단 인사는 지난해부터 11월 1일자로 단행하고 있으나,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그룹에 편입되면서 12월에 사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회사내 전설의 사원 되고 싶다"

직장인 88% 업무·평판 등 최고 원해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전설의 사원'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기업 크레듀와 함께 직장인 2천82명에게 "당신은 전설의 사원이 되고 싶은가"라고 설문한 결과 8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히트상품 개발이나 실적 신기록'(32.6%)이나 '최고의 평판'(29.5%), '초고속 승진'(17.0%) 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했다.

이를 반영하듯 직장인들이 목표로 하는 직급은 임원급(32.9%)이 가장 많았고 최고경영자(CEO)도 29.0%에 달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텝스*	생산직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9	062-351-6050
한글과 컴퓨터 CQ	컴퓨터 방문 지도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373-5221
㈜한길텔레콤	(주)한길텔레콤 통신장비기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572-6221
사이닉스*	사이닉스(주) 관리부 직원 (의료기제조업)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03	062-602-7842
㈜한라메디칼	관리직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3	062-262-3001
광림직업전문학교	2007년 하반기 전자,통신 훈련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4	062-529-3000
㈜시몬테크닉스	경영기획 직원	대졸/경력3년	2600~2800	12/06	062-944-3400
에네스건설*	인사,총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572-5500
으뜸기계	cnc 선반가공,범용 수평선반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08	062-720-7783
대명하이텍*	제어반 및 케이블 설치 인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8	016-315-8397
삼성화학*	품질보증 관련 사무인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8	062-951-8001
㈜석영브라이트*	반도체 영업 정규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2-3218-162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